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P.O.Box 24992 Seattle, WA 98124
James H. Kim Publisher
Soo Ho Lee Editor

VOL 4 No. 10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NOVEMBER 1977



(채질: A Passing rice through a sieve, Korea.)

한국인 최대의 향연 (연말·크리스마스 파티)

아리랑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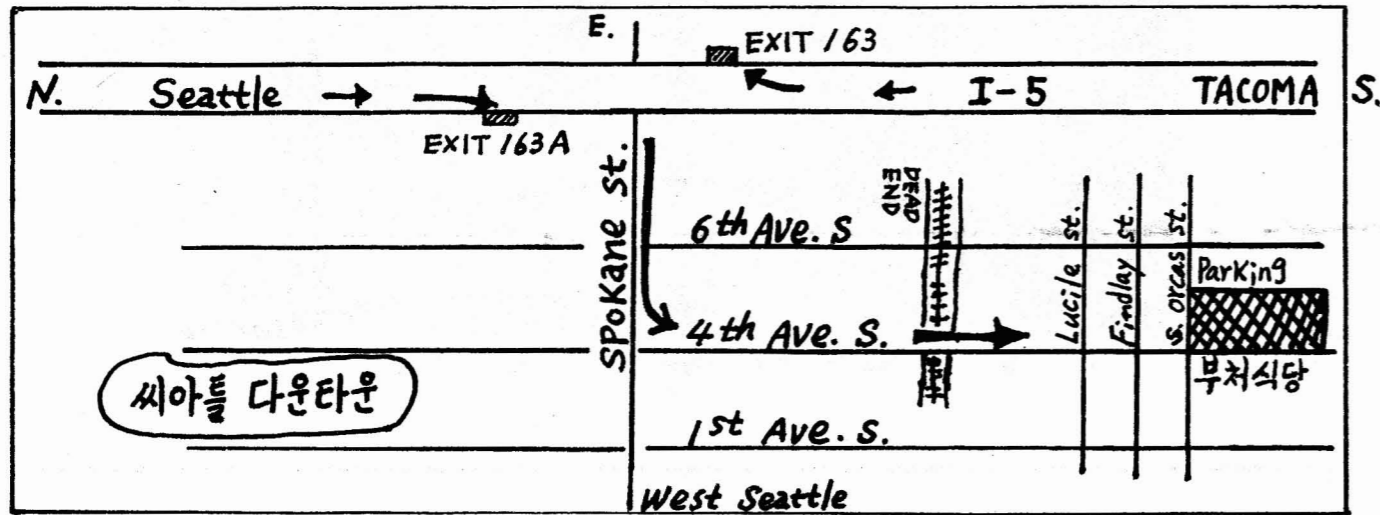
1977년 12월 23일 (금) 오후 7시부터
the Butcher Restaurant (부처 식당)
5701 6th Ave. S. Seattle, Wa. 98108

교포 누구나 즐길수 있는

"아리랑의 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씨아틀·타코마를 중심으로한 와싱턴주에 거주하시는 한인 교포 여러분 가정에서 항상 행복한 웃음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9년째 계속해 오고있는 우리 교포들의 망년회경 크리스마스 파티인 "아리랑의 밤"을 올해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작년도 "아리랑의 밤"에는 약 500명의 교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겁게 지냈으나 올해에는 더욱 큰 성황을 이룰것으로 예상 됩니다. 묵은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희망을 품고 우리모두 한자리에 앉아 봅시다. 한인회에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흥겹고 재미있는 순서를 마련 하였습니다.

- 날짜: 1977년 12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 부터
- 장소: The Butcher Restaurant (부처 식당)
(주소: 5701 6th Ave. S. Seattle. Wa. 98108. 전화: 763-2215)



- 순서 안내: 노래와 무용·저녁 식사·노래 자랑·경품 추첨·댄스와 자유시간
- 입장료 : 1인당 \$10.00 (\$10.00에 포함된 비용은 아래와 같음)
(1인당 경비 비용: 정식저녁 식사 \$6.60 + 밴드비용 \$1.60 + 장소비 \$40. + 광고료 \$1.38)
- Free Parking (무료 파킹). 4th Ave. 를 이용 하십시오
- 입장권 예매: 씨아틀·타코마 지역 한인인 상점, 식당 (이사 및 임원들로 부터 표구입 가능함)
- * 노래 자랑에 출연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인 밴드가 흥겨운 음악을 제공할 것입니다.

예약 연락 및 문의 전화: 624-7604. 624-7607 (밤: 762-8281 · 762-2423)

— 주최: 씨아틀·와싱턴주 한인회 —

"아리랑의 밤" 안내

앞에서 안내한 "아리랑의 밤" 개최에 대하여 중요한 몇 가지를 첨가 안내해 드립니다.

1. 12월 23일 밤 7시 정각에 시작이 됩니다.
2. 저녁 식사(정식) 준비 관계로 예약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명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를 파악해야만 되는 주최측의 고충을 이해 하시고 12월 19일까지는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약 접수 합니다)
3. 예약 방법 (19일까지 예약 접수)
 1. 씨아틀·타코마지역 한국인 식당, 상점에서 입장권을 구입 하는 방법.
 2. 한인회 임원이나 이사로 부터 입장권을 구입 하는 방법.
 3. 예약을 전화로 하는 방법
(낮: 624-7604, 7607. 밤: 762-8281, 762-2423)
4. 당일 밤 9시 이후에는 저녁 식사 제공이 불가능 합니다.
5. 약도를 참고 하셔서 4th Ave 를 이용 하십시오.
6. 부처 식당 파킹장 일대는 무료 파킹 할수 있습니다.
7. 노래 자랑에 출연을 희망 하시는 분들은 미리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 알림 ≡

- 씨아틀·타코마를 중심으로한 와싱턴주에는 한국인의 수가 날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인 회보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한인회로 이름과 주소를 보내 주시면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간혹 근간에 회보를 못받는다 하는 가정은 있는데 우송 과정의 착오가 있을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 가정에서도 곧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많은 교포들을 위하여 일 하노라본 본의 아니게 누락이 되는수도 있을줄 알고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으면 착오가 없는것으로 알수 밖에 없습니다. 이사를 하셨을 때도 곧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인회 정기총회 조용히 끝나다

지난 11월 12일 오후 7시 부터 롱스톤 회관에서 있었던 씨아틀·와싱턴주 한인회 제 11회 정기 총회는 조용히 끝났다. 7시 30분경 박 재인 총무 사회로 국민 의례에 이어 김 형진 회장의 개회사가 있었으며 몇일 전에 부임한 남 홍우 주 씨아틀 영사의 인사 말씀이 있었다. 이날 참석한 교포들은 남 홍우 영사의 부임을 환영하는 박수를 보내기도 하였다. 부회장 암스트롱 여사의 사회로 사업 보고, 재정 보고가 있었으며 총회가 끝나고는 곧 선거에 들어갔다. 먼저 김 형진, 조 영. 두 후보의 소견 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투표가 시작 되었다. 8시 30분이 되도록 입구에는 많은 교포들이 투표 용지를 받기 위하여 줄을 서있었다. 투표에 들어가기전 "한국 요람" 멤버인 이 인순씨는 기타를 연주하면서 한국 가요를 불렀는데 많은 교포들은 아름다운 음악에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이 인순씨의 맑고 우아한 목소리는, 총회로 인하여 들떠있던 마음들을 안정 시켜 주었다. 씨아틀 한인회 역사상 볼수 없었던 많은 수의 교포들이 모였다는데 대해서 모두들 놀라운 표정들이었으며 그만큼 한인 사회의 힘이 커졌다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280석의 좌석은 물론 층계와 복도에까지 앉지않으면 안될정도였는데 투표에 참여한 인원수만도 428명이었으니, 총인원은 500명 정도로 추산 되었다. 이날 비가 버리지 않았다면 더 많은 수의 교포들이 참여 하였을것으로 생각 되었다. 많은 수의 교포들이 참여 하였다는 사실은 인구의 자연 증가에도 원인이 있을것이며 한편 한인 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진 까닭이라고도 볼수 있을것 같다.

中央日報

SEATTLE 과 TACOMA 지역

안내광고 SEATTLE (206) 235-4346
구독신청 TACOMA (206) 588-1434

이 증 완

● 행복한 가정인,
번영하는 사업가는 中央日報를 읽습니다.

구독료는 월: 4불

1978년도 한인회
 회장 김형진씨 부회장 박재인씨
 정명화씨

씨아틀·와싱턴주 한인회 역사상 불수 없었던 많은 교포들의 관심속에서 이루어졌던 한인 회장 선거는 지난 11월 12일 김형진 현 회장의 압도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다. 비가 내리는 이 날 밤 선거에 참여하기 위하여 많은 교포들은 줄을 서서 투표용지를 받고 있었다. 투표권은 18세 이상, 금년도 회비납부자에게 발부 되었는데, 당일 현장에서 회비를 납부한 자에게도 투표권을 인정하였다. 투표는 9시경에 시작되었으며 개표 집계는 끝날때 까지 모든 교포들의 시선은 검표하는 단상에 긴장을 모으고 있었다. 김형진 후보 270표, 조영 후보 147표라는 선거관리 위원장의 발표에 이어 당선 선언이 있자 엇갈리는 표정들의 수간이 있기도 하였다. 총투표자 421명 중 무효 4표가 있었다. 이렇게 하여 김형진 현 회장은 다수 교포들의 지지를 얻어 1978년도 회장직에 재임하게 되었다. 규정에 따라 김형진 회장은 박재인 현 총무를 부회장으로 추천 하였으며, 정명화, 김정일씨를 회원들이 추천 하였다. 부회장 투표 결과를 보면 박재인씨 118표, 정명화씨 68표, 김정일씨 57표가 나왔다. 따라서 1978년도 한인회 회장에는 김형진씨, 부회장에 박재인, 정명화씨가 각각 당선 되어 1년간을 일하게 되었다. 한편 이사에 출마한 김재호, 한만섭, 황수철씨는 경쟁자 없이 무투표 당선 이사가 된 것이다.

• 주 씨아틀 총영사관 개설 •
 남홍우 영사 부임

씨아틀·타코마를 비롯한 인근지역 교포들의 오랜 희망이었던 한국 영사관이 개설 되었다. 한국 정부가 주 씨아틀 총영사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고려해 왔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개설되고 보니 큰 기쁨이 아닐수 없다. 지난 11월 9일 남홍우 영사가 이 중요한 직무를 맡고 씨랙 공항에 도착, 올림픽 호텔에 여장을 풀고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이지역 교포들은 대정부 업무를 위해서 주 상항 총영사관을 이용해 왔는데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많은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 주씨아틀 총영사관 개설은 많은 교포들에게 편의를 줄것은 물론인 동시에 한국 총영사관이 씨아틀 한복판에 개설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한국인의 자랑이 될수 있으며, 민족적인 긍지 또한 자못 크다 하겠다. 11월 9일, 한인회장 김형진씨와 무역진흥공사(KOTRA)이 만득 관장은 공항에 나가 남홍우 영사님을 영접하였다고 하며, 16일에는 김형진 회장이 영사님과 함께 오찬을 나누면서 한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와 정부의 협조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고 한다. 한인회에서는 그동안 Washington D.C.의 김용식 대사와 주 상항 총영사로 부터 공한을 받은바 있는데 한인회가 협조 할수 있는데 까지 긴밀한 협조를 하여 한인 사회의 발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였다. 주씨아틀 총영사관의 관할 지역은 와싱턴주, 아라스카주, 몬타나주, 오리곤주, 유타주의 5개주라고 하며 임시 사무실 주소는 아래와 같다.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Olympic Hotel # 254
 4th and Seneca St.
 Seattle, Washington 98111

영사관에서 정식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며, 내년 초부터 정식업무를 볼듯 하다.



집 없으면 집을 사시고
 집 있으면 집을 파세요



김형중 부동산 여사
 (FRANK) HYUN CHOONG KIM

- 무료봉사: 환산 이자를 앞당겨 버드림
- 무료상담: 정확한 가격을 버드림니다
- 취급종류: 주역·아파트·호텔·도지
 •점포·기타사업 투자안내

Phone: SEATTLE RES. 774-7828, BUS. 774-7828, 525-7200
 Tacoma: 437-7112

지난번 정기 총회를 보고

이 창회

평년도 회장과 이사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 위원회가 조직되고, 그 위원회의 선거용지가 분포된 후로 최종 기일이 임박하도록, 씨아틀 교포 사회에서 아무 동태가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한심하였었다. 그렇더니 최후 한인 회보가 나오자 여기저기서 비평이 들려오고, 이번 총회에 큰 소동이 있으리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총회 날 회장에 들어가니 정각전에 벌써 만원이 되었고 연하여 사람들이 모여들어 웅성하며 한 모퉁이에서는 완력적 대치도 있어서 좀 걱정이 되었었다. 씨아틀 한인회가 생긴후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보기는 처음이었다. 몇해 전에 기성 한인회 쟁탈운동 당시에도 이번 모임의 반수도 못되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장외에라도 미국 경관들이 와서 기다리고 섰지는 않았다. 애국가 봉창으로 장내 공기가 엄숙하여졌다. 그러나 살 풍경은 느껴지지 않았다. 과거 사업보고가 끝나고 선거 순서에 들어가 두 회장 후보가 각각 자기 소개와 정견 발표가 있었는데, 김 형진 후보는 현직 회장이고, 또는 체변가가 아니므로 그 진술 내용이 간단명료하였고 청중의 환영 박수도 정상적이었다. 대립 후보 조영 후보는 웅변적이며 약간 비평적이었지만 정태를 잃거나 가혹한 악평을 한것은 없었다. 청중의 박수도 별 차이를 느낄수 없었다. 회원들의 투표, 정당한 대표들의 감시 아래서 신사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결과, 상당히 많은 차이로 김 형진씨가 당선 되었다. 나중에 들은바에 의하면 선거 운동이 암암리에 상당히 있었는데, 조영씨는 씨아틀시에서만 공작하였고, 김 형진씨는 씨아틀뿐 아니라, 교포들이 제일 많이 사는 타코마지역 측으로도 공작을 하였으므로 많은 차이가 난 것이라 한다. 여하간 현행 주칙상으로 합법적이었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와같이 선거가 순조롭게 잘 지내게 된 것은 현재 한인회 간부와 지도층의 심철한 노력과 조정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곳 교포 전체의 우수성의 표현으로 알고 기뻐하기 마지 않는다.

이번 선거를 보고 느낀바는, 우리 사회에, 의견이나 사상 발표 기관이 전혀 없어서 개인의 사상을 발표할수

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교포의 힘으로 잡지나 신문을 발간하기에는 아직 힘이 약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 성장기간에 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 지금의 우리 교포를 위하여 나오는 것은 "한인 회보" 하나 뿐이다. 한인 회보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름 그대로 해석하면, 이것은 한인회의 기관지, 즉 한인회의 사업 발표, 계획 발표, 결의 발표, 요청 발표등 한인회를 위한, 한인회를 유익하게 하기위한 간행물이라 하겠다. 협의적으로 그 해석이 옳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인회를 그 회비번 사람들의 단체로 볼때에 할 해석이다. 한인회는, 범위를 넓혀서 전 한인 교포들의 복리를 위한 단체로 자인한다면, 한인 회보의 사명이 훨씬 넓어진다. 현 한인회 간부와 수외측에 이롭거나 해롭거나를 막는하고 한인 교포의 진지한 이론 혹은 의견의 표시라면 환영해서 발표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시기 예컨대, 선거기 같은 때는 임시로도 배며, 폐-지수도 늘여서 대중에게 정당하고 풍부한 지식과 견해를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많은 인력과 금력이 필요 될것이다. 노력과 활동이 앞서면, 우리 교포 사회에서 대응이 있을 줄 안다.

외환은행 씨아틀 사무소 개설

소장에 김 연조 씨

한국 외환은행이 씨아틀에 사무소를 개설한다. 주은행 감독국으로 부터 설치허가를 정식으로 취득 12월 6일 개설 한다. 사무실은 씨아틀 다운타운의 Bank of California 빌딩 14층 1435로 정하고 초대 사무소장에 김 연조씨가 임명 되었다. 주요 취급업무는 북서 태평양 소재 거래 은행과의 업무증진 및 유대를 강화하여 유리한 조건의 자본도입과 미국자본 시장의 외환 및 금융정보를 본점에 제공하여 투자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한국의 무역 증진 및 경제발전을 미국 업체에 소개하는 경제조사 업무를 담당케 된다. 대출, 예금등 일반 은행업무는 직접 취급치 않는다고 하며 미국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교민 및 한국업체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금융상담도 취급 하리라 한다.



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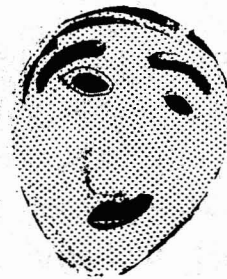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구비하고 일반 슈퍼마켓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차 왕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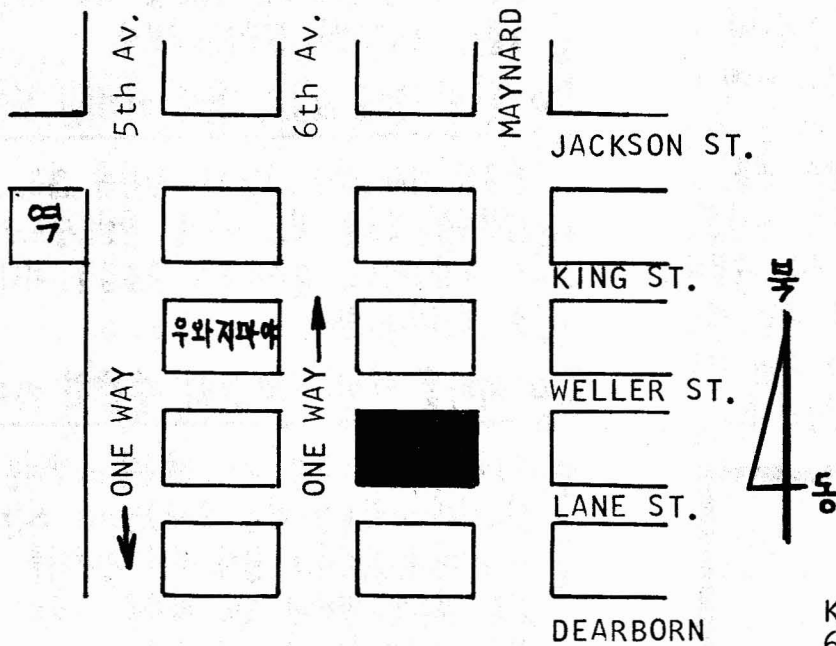
코리아 센터 배상

개업

센라



- 생선 및 육류
- 간장 및 참기름류
- 라면 및 국수류
- 채소류 및 과일류
- 미국식품 및 생활필수품
- 한국서 직수입 품목
- 밀반찬류
- 곡 류



이민국

KOREA CENTER
616 6th Ave.
SEATTLE, WASH
☎ 682-9092

어느 주부의 일기

아이들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집을 나섰다. 저녁을 서둘러 먹었는데도 밖이 캄캄하다. 꽤 추운 날씨여서 털 오바를 둘러쓰고 Mark네 집부터 문을 두들겼다. 선천 호흡기 불구 아동을 위한 모금에 나선 것이다. 처음엔 모금을 부탁하는 전화를 받고 애기가 여럿되어 하지 못하겠노라 거절했으나 이 부근 두 부락을 모금할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고 두번째 전화를 받고는 승낙하였다. 9월 마지막 주말이 모금 기간인데 1달이 지나도록 납금하지 못하여 두번이나 우편 독촉을 받았는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을 끝내야만 한다고 결심한 것이다.

한 집에서 문을 열어주며 들어오라고 하였다. 안을 보니 깨끗이며 모든 가구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 피아노 위에 찬송가와 벽에 걸린 성화로 단번에 교인임을 알수 있었다. 60세 가량의 일본분인듯한 남자 분이 처음에 인사를 하더니 그 부인을 불러 주었다. 3불을 체크로 써 주었다. 앞 정원을 걸어나오면서 주님, 기억해 주세요. 이집에 복주시고 갓아 주세요.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

15전, 25전, 그리고 50전을 주신분들. 한집에서 1불을 주었고 Mrs. Brook 이 1불을 주었고 아버지가 준 1불까지 근 10불을 모금 하였다. 미국은 주는 나라, 돕는 백성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 그러나 오늘 기금을 준 집과 거절한 집수가 반반인것 같다. 오늘 모금에 참석해준 각 가정들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구한다. 이 적은 금액에 주님 역사 하셔서 건강하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치료가 되게 하시며 그 부모님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기를 간구한다.

헨리 장 여행사

9002 12th Ave. N.E.
Seattle, WA 98115
(206) 523-7057

- * 단체 모국 방문
- * 국제 국내 비행기 표
- * 민원 서류 (교포 여권, 여권 연장) 배부
- * 각종 서류 작성, 수속 대행

Henry Chang Travel Service

News 뉴스

○ 윤 연하씨 학부형 회장에 피선

지난 11월 16일에 있었던 4개국 이중 언어교육 학부형회에서 윤 연하씨는 회장에 피선 되었다. 또한 정 낙영씨와 백 현옥양은 한국인 대표로 선출 되었다. 이날 밤에는 임원 선출을 끝내고 각국 학생들의 특기 자랑이 있었는데 한국 학생 5명의 태권도 시범은 다른 나라 관중들로 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으며 한국 여학생의 부채춤도 인기가 대단 하였다. 이날 한국측은 백 경숙교사의 지도로 진행 되었으며 이 지숙, 이 영희 교사도 참석 하였다.

○ 연합 합창단, 미국 감리교회 특별출연

한인 연합 합창단(단장-김 종원 박사)은 11월 6일 케너대일 미국 감리교회의 초청을 받아 특별 출연을 하였는데 참석 하였던 많은 미국인들은 한국인 합창단의 연주에 대하여 감탄 하였다. 부른 곡목은 주로 성가와 우리 가곡 "고향 생각" 이었다. 특히 독창을 부른 김 미경씨의 아름다운 목소리에는 모든 청중들이 큰 감명을 받은것 같았다.

○ 한인 장로교회, 본국 이재민 도움

한국의 이리 참사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이 생겼다는 보도를 보고, 씨아를 한인 장로교회(안성진 목사)에서는 200불의 구호금을 이리 장로교회로 보냈다고 한다.

○ 씨아를 한인 침례교회, 수양회 가져

11월 11일~13일, 교우 전체의 수양회를 가진 한인 침례교회(정 하경 목사)는 그 기간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 특히 청년회를 조직하여 교회 부흥과 발전에 크게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고 한다. 청년 회장에는 김 중환씨, 부회장에는 정 중환, 이 숙희씨가 선출 되었다고 한다.

한인 업체 동정

○ 송 문익씨 중앙식품 인수 경영

중앙 식품 주인이 바뀌었다고 한다. 송 문익씨는 얼마전에 중앙 식품을 인수 경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송 문익씨는 새로운 경영 방법으로 교포들에게 봉사한다고 하며 앞으로 얼마동안은 저렴한 가격으로 교포들에게 서비스 하겠다고 한다.

전화: 762-5620

○ 이 강운씨 한일관(한식) 개업

타코마에서 "꽃 장구" 식당을 경영하던 주인이 바뀌면서 이름도 바뀌었다. 이 강운씨는 식당 이름을 "한일관"으로 바꾸어서 교포들에게 알맞은 좋은 식사를 제공 하리라고 한다. 경영주 이 강운씨는 한식은 물론 중화 요리도 취급 한다고 한다. 이 강운씨는 한국에서 돈암동 삼오정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얼마전 까지 씨아틀에서 미국 식당을 경영 하였다고 한다.

전화: 582-8944 (타코마)

와싱턴주 학생회 회장에 김 상태씨

재 와싱턴주 학생회는 지난번 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 의욕적인 출발을 하였다고 한다. 임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회장: 김 상태. • 부회장: 주 봉익, 김 명희.
 - 운영 위원: 정 종환, 이 남철, 구 정모.
 - 섭외 부장: 이 규명. • 체육 부장: 이 석보.
- 한편 학생회의 금년도 목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생회원 상호간의 우애를 더욱 돈독히 한다.
2. 학생회원간의 불상사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는 시급히 구제 할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3. 어렸을 때 이민 온 교포 학생들이 증가됨에 따라 이들에게 의미해져가는 조국의 문화를 접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4. 각국 학생 및 미국인에게 우리의 높은 문화를 보여 준다.
5. UW. 및 각대학의 학생활동 및 I.S.O. 와 A.S.A. 등에서 적극 참여하여 Korean Identity 를 보여 준다.



워싱턴 부동산회사

WASHINGTON REALTY, INC.

Terminal Sales Building #510

1932 - 1st Ave.

Seattle, Wash. 98101

전화 622-4120

8717 So. Hosmer St. #G

Tacoma, Wash. 98444

전화 535-3000



안 병 용

(PHILIP B. AHN, BROKER)

(Res.) 838-2010/927-7778

MLS

박 영 민

Commercial and Investment Brokers Association

(Res. Phone) 838-4339

초빙: Realtors

***Members of 3 Multiple Listing Associations

***Full Service Real Estate Brokerage

부동산. 투자. 상담. 재산관리. 보험. 무료상담.

* 동문회 소식 *

성균관 대학교

와싱턴주 성균관 대학교 동문회에서 금년 망년회를 12월 17일 (토) Buriem에 있는 King HWA Restaurant에서 갖는다고 하며, 새로 오신 동문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란다고 한다.

• 연락 할 곳.

씨아틀: 362-6795 (송)

타코마: 474-2546 (조)

한인회비 납부자 명단 (속) 11월 30일 현재

119.	정태성	\$5.	153.	김두영	\$5.	187.	오계희	\$5.	221.	김동호	\$5.
120.	심상현	10.	154.	조성욱	10.	188.	김경배	5.	222.	최경진	5.
121.	이정섭	10.	155.	박춘관	10.	189.	신인범	5.	223.	이강운	5.
122.	박재민	10.	156.	김상목	10.	190.	김세바스찬	5.	224.	남성삼	10.
123.	김수창	10.	157.	이형상	5.	191.	김정부	5.	225.	이기락	5.
124.	박몬복	5.	158.	조정자	5.	192.	김충일	5.	226.	박준호	5.
125.	조요한	5.	159.	박둘이	5.	193.	김동협	5.	227.	오윤영	5.
126.	이선복	10.	160.	조정숙	5.	194.	신병철	5.	228.	이고명	5.
127.	최금순	10.	161.	김도영	5.	195.	이종완	5.	229.	당명중	5.
128.	변덕암	5.	162.	김진명	5.	196.	곽분남	5.	230.	정주영	5.
129.	김용준	5.	163.	김수영	5.	197.	강선식	5.	231.	Brown향남	5.
130.	최수호	10.	164.	안병영	10.	198.	엄종락	5.	232.	한승희	5.
131.	예주혜	5.	165.	Mrs. Han	CoK 5.	199.	김병관	5.	233.	최앤나	5.
132.	김순	10.	166.	Mrs. April	5.	200.	이윤수	5.	234.	최홍석기	5.
133.	황동카	5.	167.	이병희	5.	201.	곽명수	5.	235.	김용설	10.
134.	박상옥	10.	168.	강태원	5.	202.	이명주	5.	236.	최정식	5.
135.	노도술	5.	169.	손팔수	5.	203.	김일두	5.	237.	윤연하	10.
136.	장진섭	5.	170.	나동천	5.	204.	서영호	5.	238.	윤순옥	5.
137.	이창도	10.	171.	오신도	5.	205.	김광택	5.	239.	최용주	5.
138.	안성진	10.	172.	이영인	3.	206.	정성국	5.	240.	최인식	5.
139.	노명근	10.	173.	최길자	5.	207.	이상인	5.	241.	구분악	5.
140.	조병식	5.	174.	윤차현	5.	208.	이성희	5.	242.	구박건홍	5.
141.	문재만	5.	175.	윤미영	5.	209.	서명민	5.	243.	김실동	5.
142.	정낙영	5.	176.	장현수	5.	210.	양승남	5.	244.	Yong Yi DAVIES	10.
143.	이진우	5.	177.	장송춘무	5.	211.	정명화	5.	245.	PAGE	5.
144.	장태수	5.	178.	김재길	5.	212.	조재환	5.	246.	손우학	5.
145.	윤태선	5.	179.	신경협	5.	213.	재림 BARRIS	5.	247.	손무학	5.
146.	박인귀	10.	180.	신명협	5.	214.	조재진	5.	248.	THompson, Jina.	10.
147.	고정하	5.	181.	신정순	5.	215.	김일용	10.	249.	김인차	5.
148.	이석인	5.	182.	김기영	5.	216.	김정일	5.	250.	김인성	10.
149.	노순면	5.	183.	정명임	5.	217.	박헌진	5.	251.	백순카	10.
150.	임병식	5.	184.	박을연	5.	218.	고영찬	5.	252.	엄명보	5.
151.	임원	5.	185.	박남장	5.	219.	김건상	5.	253.	신찬순	5.
152.	이현숙	5.	186.	장	5.	220.	안승적	5.	254.	이현기	5.

- 255. 최덕신 \$ 5.
- 256. 오준환 5.
- 257. 박원희 10.
- 258. 김종태 5.
- 259. 이흥동 5.
- 260. 이황병 5.
- 261. 김종호 5.
- 262. 김병식 5.
- 263. 김두호 5.
- 264. Mr. Shaw 10.
- 265. 안기혁 5.
- 266. 최창하 5.
- 267. 이현영 10.
- 268. 강병철 10.
- 269. 이종건 10.
- 270. 최원웅 10.
- 271. 정춘자 5.
- 272. 백춘희 5.
- 273. 이덕재 5.
- 274. 이귀용 5.
- 275. 하기선 5.
- 276. 하임춘 10.
- 277. 이점길 5.
- 278. 이김명조 5.
- 279. 박일명 5.
- 280. 이말무 5.
- 281. 윤길용 5.
- 282. 이정천 5.
- 283. 이영호 10.
- 284. 김남규 5.
- 285. 김덕근 10.
- 286. 김하정 5.
- 287. 노일건 5.
- 288. 송기만 5.
- 289. 윤갑 5.
- 290. 지장환 5.
- 291. 손옥봉 \$ 5.
- 292. 박명권 5.
- 293. 강득오 5.
- 294. 문병원 5.
- 295. 김태용 5.
- 296. 조기두 5.
- 297. 손옥자 5.
- 298. 강정미 5.
- 299. 김순자 5.
- 300. 이경구 5.
- 301. 하해현 5.
- 302. 박정신 5.
- 303. 현석노 5.
- 304. 이종순 5.
- 305. 노두용 5.
- 306. 손달수 5.
- 307. 이순희 5.
- 308. 계완근 5.
- 309. 전영환 5.
- 310. 오윤환 5.
- 311. 김명한 5.
- 312. 주상걸 5.
- 313. 이흥원 5.
- 314. 김일소 5.
- 315. 장두봉 5.
- 316. 송종호 5.
- 317. 김싸움 5.
- 318. 변재완 5.
- 319. 송정식 5.
- 320. 송은수 5.
- 321. KHan 5.
- 322. 노덕현 5.
- 323. 황의태 5.
- 324. 윤석진 5.
- 325. 전기수 5.
- 326. 권형주 5.

- 327. 한의권 \$ 5.
- 328. 서몽용 5.
- 329. 정생근 5.
- 330. 허신 5.
- 331. 배동학 5.
- 332. 윤태주 5.
- 333. 서희성 5.
- 334. 서희원 5.
- 335. 이재욱 5.
- 336. 조차형 5.
- 337. 구상모 5.
- 338. 박보현 5.
- 339. 민덕기 5.
- 340. 변영수 5.
- 341. 박동주 5.
- 342. 주태혁 5.
- 343. 신병권 5.

**한인회 · 봉사센터
운영 기부금 납부자**

- 조지문 \$ 100.
- 정태성 10.
- 오계희 10.
- 윤부원 10.
- 오원분 10.
- 황동주 10.
- 김지숙 10.
- 이서명희 10.
- 서문상숙 10.
- 변연숙 10.
- 백경숙 10.
- 이진우 10.
- 조영웅 10.

ECHO LAKE MOTEL

STUDIO APT.

- 전기·히터·물 합해서
 월 \$ 140.00
- 한국 학생에게 편리함.
- 장소: 19522 AURORA. N.
 Seattle. wa.
- 연락처
 542-1928. 784-8256
 Mrs. Sex-Smith

김철준
김철준

NEW YORK
LIFE

보험



SEATTLE 사무실 : 363-3704

집 : 232-9207

TACOMA 사무실 : 588-0333

CHUL J. KIM
FIELD UNDERWRI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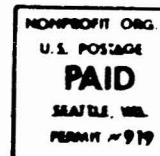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4121 SEATTLE-FIRST NAT'L BANK BLDG.
SEATTLE, WA 98154
363-3704

We guarantee tomorrow today.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SHINGTON 98124



NON PROFIT ORGANIZATION FOR KOREAN.

0257 000154005
HAHN MAN SOP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

김철준
김철준

NEW YORK
LIFE

보험
보험



SEATTLE 사무실 : 363-3704

집 : 232-9207

TACOMA 사무실 : 588-0333

CHUL J. KIM
FIELD UNDERWRI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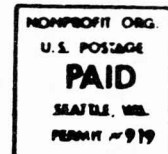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4121 SEATTLE-FIRST NAT'L BANK BLDG.
SEATTLE, WA 98154
363-3704

We guarantee tomorrow today.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SHINGTON 98124



NON PROFIT ORGANIZATION FOR KOREAN

0257 000154005
HAHN MAN SOP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